

교회 사학자(김양선의) 신앙과 한국 교회

이 철*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김양선 신앙의 역사적 위치
- III. 김양선의 신앙과 한국교회
- IV. 나오는 말

I. 들어가는 말

왜 우리는 과거를 되돌아보려 하는가? 오늘은 과거가 빚어낸 것이고 그 오늘은 과거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형태의 문답을 다음과 같이 할 수 있겠다. 우리는 왜 옛사람을 만나보려 하는가? '오늘의 우리는 옛사람이 빚어낸 것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옛사람의 모습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송실 시인 김현승은 이러한 역사의 연맥성을 매산(梅山) 김양선(金良善)을 위한 시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옛 것은 옛 것이 아니로다. 옛 것이 있으므로 새 것이 있도다. 새로운 새 것은 가장 낡은 모습을 변치 않고 아련히 간직하도다."¹⁾ 과거나 옛사람에 대한 물음이 단순히 과거나 옛사람에 관한 물음일 수만은 없다. 그것은 곧 오늘 우리의 모습에 대한 물음이 되기도 한다. 과거나 옛사람에 관해 물어봄으로써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 본교 기독교학대학원 겸임교수

1) 김현승, "참된 보화: 김양선 교수에게," 사학연구 20 (1968년 9월)· 5

한국교회와 교회사에 큰 발자국을 남긴 매산 김양선, 우리는 그의 삶과 글을 통해 학자로서 그의 생애와 지적 활동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새로이 조망해 볼 수 있는 귀중한 관점을 제공받을 수도 있다. 이것은 특히 김양선에게 있어 더욱 가능한데, 그것은 그가 한국교회 시작의 증인인 동시에 이후 한국교회가 걸어간 질곡의 역사를 직접 함께 걸어가면서 기록한 학자이기 때문이다.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희망이 없다는 말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김양선과 그에 대한 연구는 우리의 관심을 요구한다

이 글은 김양선이 행한 역사연구를 내용적으로 분석하거나 비교하는 논문이 아니다. 이 글은 김양선의 신앙과 학문을 한국교회의 역사적 위치와 연관시켜 이해해보고, 한국교회를 위한 그의 애정과 충고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봄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찾아보는데 관심 한다.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집필을 하다보니 다루고 싶은 주제를 모두 다 연구하지 못하였다. 독자들의 깊은 이해를 구하며, 필자의 부족한 점으로 인해 김양선 선생의 업적이 가려지거나 왜곡되지 않기를 빌 뿐이다.

II. 김양선 신앙의 역사적 위치

김양선의 신앙은 독특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다. 그가 태어나고 성장한 곳이 의주, 선천, 평양과 같은 서북지방으로 이 지역은 당시 조선의 다른 지역과는 여러모로 구별되는 정치, 경제, 문화적 요소를 지니고 있던 곳이다. 김양선의 신앙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러한 독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²⁾

1. 정치적 위치

조선 오백년간 서북인들이 정치적으로 차별을 받아왔다는 것은 서북인들에 대한 중앙정부의 등용차별정책에서 드러난다. 택리지의 저자 이증환(1690-1760?)에 따르면 태조 이성계는 왕위에 오른 후 서북인을 등용하지 말 것을 명하였다고 한

2) 서북지역의 개신교 수용문제를 서북지역의 사회·문화적 요인과 연결시켜 분석한 이광린 교수의 학문적 시도는 이제 기념비사적 연구가 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을 보라. 이광린, "개화기 서북지방의 개신교," 순천대학교논문집 5 (서울 순천대학교, 1974) 435-47, Kwang-rin Lee, "Western Korea and Protestantism in the Enlightenment Period," Journal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no 41 (June 1975) 1-16

다.³⁾ 이 차별정책은 한 때 숙종(1674-1720)과 정조(1776-1800)에 의해 어느 정도 완화 혹은 폐지되는 듯 하였으나 불행히도 큰 결실 없이 끝나게 되어 결국 조선 오백년 내내 서북인들은 관직다운 관직에 올라보는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⁴⁾

한편, 서북인들은 중앙정부로부터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로부터도 정치적 고통을 심하게 받았다. 조선시대의 지방정치는 크게 다음 세 집단간의 역학관계 안에서 이루어 졌다. 곧 중앙에서 파견한 관료집단, 지역 양반 세력, 그리고 대부분이 농민인 지역 거주민 집단이었다. 이 세 집단들이 각자의 독특한 위치와 힘과 제도에 근거해 상호간의 지배, 견제, 규제, 복종, 저항 등의 형태를 취하면서 지방정치를 풀어나가고 있었다.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조선사회의 신분제도상 일반적으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은 양반의 대열에 속할 수 없었다. 양반 중에는 현재 관직에서 일하고 있는 양반이 있고 관직에서 물러난 양반이 있는데 후자는 대개 자신들의 본향으로 내려와 소위 재지사족(在地士族) 혹은 사림(士林)을 이루게 된다. 이 재지사족은 그 지역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향청(鄕廳) 혹은 유향소(留鄕所)를 운영하였고 향악(鄕樂)을 실시하여 농민들의 생활을 규제하였다. 지역의 향권(鄕權)을 장악하기 위해 이들은 이외에도 양반 명부인 향안(鄕案)을 기록, 보존하였고 서원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⁵⁾

중앙정부의 명을 받아 임명지에 온 관료가 만나는 집단은 우선 이 재지사족이었다. 고려 때부터 시행한 상피제(相避制)에 따라 관료는 자신의 연고지로 파송될 수 없었다.⁶⁾ 연고가 없는 곳에 부임한 관료는 원활한 행정운동을 위해 재지사족의 협조가 필요하였다. 관료의 입장에서 볼 때 재지사족이 신분적으로는 지역 내에서 어느 정도 독자적인 위치와 영향력을 갖고있는 양반계층이었고 또한 정치적으로는 자신의 원활한 지역 통치를 위해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집단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존재나 요구를 무시할 수만은 없었다.⁷⁾

3) 고석규, "18세기말 19세기초 평안도 지역 향권의 추이," 한국문화 11 (1990): 344. 태조가 서북인을 등용에서 제외한 이유는 서북인들이 기개가 높고 호전적이어서 관직이 주어지면 반정의 위험성이 높다는 당시 지배계급들의 생각과 관련이 있었다. 정우경, "홍경래 난의 성격에 대한 검토," 역사 재문제 13 (1949년 11월): 3-4.

4) 숙종은 신하들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평양인 양현명을 등용하기도 하였으며 정조는 1788년 서북인에 대한 차별철폐를 선언하기도 하였다. 정우경, 4-5.

5) 정진영, "조선후기 재지사족의 촌락지배와 그 해체과정," (영남대박사학위논문, 1993), 5, 53-54; Fujiya Kawashima, "A Study of the Hyangan: Kin Groups and Aristocratic Localism in the Seventeenth- and Eighteenth-Century Korean Countryside," Journal of Korean Studies 5 (1984): 3; Ki-baik Lee, A New History of Korea, translated by Edward W. Wagner (Seoul: Ilchokak, 1984), 207.

6) 한상준, "조선조의 상피제에 대하여," 대구사학 no. 9 (1975년 11월): 32.

7) 정진영, 41.

관료집단과 재지사족 사이에 존재하였던 이같은 미묘한 관계는 수적으로 그 지역의 다수인 농민층에게 때로는 도움이 되었다. 재지사족의 경제적 토대는 대부분 농지로, 이들은 이 농지를 농민층에게 경작케 하고 그곳에서 나는 소출중 일정 부분을 거두어들임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쌓았다. 따라서 재지사족에게 있어 농민의 존재와 노동력 확보는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의 필수조건이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관료들이 종종 사리사욕을 위해 과도한 세를 부과하기 일쑤였으므로 농민들은 수탈과 학정에 시달려야 했다. 이러한 수탈과 학정 하에서 농민들은 의욕상실로 인해 생산의욕의 감퇴를 겪기도 하였으며 심한 경우 그 지역을 떠나기도 하였다. 생산력 감소나 농지 이탈은 재지사족의 경제적 이득과 직결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재지사족은 상기에 언급한 관료집단과의 미묘한 관계에 근거하여 관료들의 학정과 수탈에 대한 견제를 취하였고, 관료들도 어느 정도 견제를 받지 않을 수 없었다.⁸⁾ 결국 관료집단과 재지사족간의 이러한 역학 관계로 인해 농민계층은 관료들의 학정과 수탈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지방정치의 역학 관계를 서북지역에 적용할 때 서북지역은 여타의 지역과 달리 독특한 정치상황을 형성하고 있었다. 등용차별정책에 의해 관직에 오르지 못하다 보니 서북인은 양반이 될 수 없었기에 재지사족이 형성되지 못하였고, 재지사족이 형성되지 못하다 보니 관료의 행위를 견제할 세력이 부재하게 되었다.⁹⁾ 따라서 관료집단의 학정과 수탈이 있어도 별다른 견제가 없어 서북인들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심한 고통을 받았다. 역사학자 이광린은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당시의 평안감사 자리는 아주 좋은 자리로 간주되어 있었다. 이것은 감사나 지방관이 착취 행위를 마구해도 이를 비판하고 견제할 양반세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¹⁰⁾

결국 서북인들은 다른 지역의 거주민들 보다 더 심한 차별과 고통을 중앙정부로부터 또 지방정부로부터 받으면서 살아왔다. 서북인 이승훈(1864-1930)은 그 경험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고 있다.

「문불과지장령, 무불과침사만호」(文不過지持掌令, 武不過僉使萬戶)라 하여 반기를 들고 일어나던 홍경래의 왜거는 당시 얼마나 서북인의 피를 끓게 하였던가. 이조 오백년간에 서북인을 학대한 것은 마침내 서북 사람으로 한없는 숙원을 품게 하였다.

8) 김인걸, “조선 후기 향권의 추이와 지배층의 동향,” 한국문화 2 (1981년 12월) 208, John N Somerville, “Stability in Eighteenth Century Ulsan,” Korean Studies Forum no 1 (Autumn-Winter, 1977) 6

9) 고석규, 381

10) 이광린, 442

· 서북 인물은 아무리 과거에 급제하여 인재가 특출일지라도 항상 무슨 반심이나 있을까 하여 중요한 관직에 임용치 않고 … 중앙정권은 기호 서남 인사의 독단장이 되어 서북 인사의 발신할 길은 두색(杜塞)되었다. 더구나 근세에 이르러서 탐관오리들이 무세(無勢)한 서북 인민을 어육같이 박탈(剝割)하여 오백만 서북 사민이 도탄의 고에 올던 것은 기억이 상신(尙信)하다 서북인이 국조를 원하여 「연이불망자미지유야」(然而不亡者未之有也)를 부르짖는 것이 어찌 당연치 아니한가.¹¹⁾

이러한 차별과 압박 속에서 살아온 서북인들은 자연히 평등과 자유를 갈망하게 되었다.

2. 경제적 위치

정치적 기회를 박탈당한 서북인들은 자연히 경제 영역에서 기회를 찾게 되었는데, 이러한 이동은 서북지역의 지리적 위치, 즉 조선의 최대 무역국인 청나라와 지리적으로 가장 근접하다는 점에 의해 더욱 고양되었다. 조선 정부가 허용한 공식적인 대청(對淸) 무역시장은 압록강 어귀에서 열린 중강개시(中江開市)와 함경도와 만주 경계에서 열린 회령개시(會寧開市), 경원개시(慶源開市)이었는데 특히 중강개시는 그 규모나 횡수에 있어 가장 큰 시장이었다.¹²⁾ 이 시장무역에 참가하는 상인은 원래 국가의 허락을 받은 상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었지만 시장의 지리적 위치상 서북인들이 다수 참가하였다.¹³⁾ 국내 시장에서 얻는 수익보다 중국과의 무역에서 얻는 수익이 매우 컸으므로 국가의 공인을 받지 않은 개인적인 자유 상인들도 정부의 통제를 피해 중강개시에 참여하였고, 때때로 공인된 상인의 수보다 더 많은 수의 비공인 상인들이 활동하기도 하였다.

이같은 자유상인들이 참여가 갈수록 증가하게 되자 얼마 후에는 이들에 의해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었으니 곧 중강후시(中江後市)라고 불렸다. 위치적으로 의주에 가깝다보니 자연히 여기에 참여하는 상인 중에 특히 의주인들이 많았다.¹⁴⁾ 중강후시가 계속 발달하게

11) 이승훈, “서북인의 숙원신통,” 신민 no 14 (1926년 6월) 203-04.

12) 이원순, “부연사행의 경제적 일고,” 역사교육 no 7 (1965년 6월) 117-18, 홍희유, 조선상업사 (평양 과학백과출판사, 1989), 328 중강개시는 1593년에, 다른 두 개시는 각각 1638년과 1646년에 시작되었다 중강개시는 일년에 두 번 열렸고 회령개시는 일년에 한번, 경원개시는 2년에 한번 개최되었다 이원순, 117-18

13) 예를 들어 1647년 중강개시를 위해 중앙정부는 총 223명의 상인을 지정하였는데 이중 평안도에서 72명, 황해도에서 21명, 개성에서 51명, 서울에서 79명 등이었다. 홍희유, 328

14) 예를 들어, 223명의 공인된 상인이 참여했던 1647년 중강개시 경우 거의 비슷한 수의 비공인 의주상인들이 함께 합류하였다. 홍희유, 328-29

되자 상업의 발흥을 문제라고 인식한 조정은 1700년에 중강후시를 폐지하게 이르렀고 결국 상인들은 새로운 시장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주목받게 된 시장이 바로 서울과 북경을 오가는 부연사행(赴燕使行)과 연관된 경제활동이었다. 조선정부는 건국 초기부터 일년에 평균 3·4차례씩 북경에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 주요 임무는 외교정치였지만 “주요 관심은 무역이었다. 외교가 국제무역의 통로로 사용되었다.”¹⁵⁾ 특별히 17세기 이후부터 많은 수의 상인과 상당량의 물품이 이 연행사편을 따라 이동하면서 무역활동을 펼치게 되었다. 부연사행과 연관된 무역활동이 활발해지자 이와 관련된 새로운 후시(後市)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른바 회동관(會同館)후시, 책문(柵門)후시, 단속사(團束使)후시로 모두 중국 영토에서 개장되는 후시였다. 이중 국경에서 대략 43 킬로 정도 떨어진 책문 혹은 고려문에서 열린 책문후시는 가장 왕성한 시장으로 중강후시가 폐쇄된 뒤 급속히 발달하였다.¹⁶⁾ 고려문에서 열린 이 책문후시에는 서울, 평양, 개성, 안주에서 온 상인들도 많았으나 지역적으로 가까운 의주에서 온 상인들도 많았다.

정계로 진출하지 못한 서북인들은 이같은 경제활동에 투신하였고 이를 통해 부를 축적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중산층으로 성장하게 되었다.¹⁷⁾ 이 독립적인 중산층은 당시 다른 지역의 한국사회에서 보기 드문 계층이었으며, 개신교 선교 초기 기독교 수용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3. 문화적 특징

서북지방은 조선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문화적으로 크게 달랐다. 1898년 서북지역을 자세히 돌아본 노병선은 자신의 여행 경험을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에 연재하면서 서북지방의 “풍속이 삼남과 대단히 다르며”라고 하였고,¹⁸⁾ 장로교 선교사 베어드(William M.

15) Gari Ledyard, “Korean Travelers in China over Four Hundred Year, 1448-1887,” *Occasional Papers on Korea* no 2 (March 1974) 3-4

16) 이원순, 116-24, 유승주, “조선후기 대청무역의 전개과정,” *백산학보* no. 8 (1970년 6월) 373-75, Ledyard, 10.

17) 서북인들이 대청무역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활동에서도 많은 부를 획득하면서 경제적 지위를 높였으나 지면상 국내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18) “서관의 풍속이 다른 곳보다 이상한 것이 많은데 남녀간에 흔히 여름에 적삼벗기와 사나회는 명색없는 탐견쓰기와 삼제야닌 포건을 쓰며 여아들은 어렸을 때 귀바퀴에 구멍을 뚫고 고리를 세워주며 여인들은 흔히 치마를 벗고 로상으로 다니며 언어는 어눌하며 분명치 않고 반말이 많으며 소년들은 의례히 관쓰고 칠팔십리 행리를 무난히 하며 체발감투는 의관으로 쓰니 남녀간 하는 풍속이 삼남과 대단히 다르며 인종은 십삼도중에 제일 큰데 집이 심히 낮아 용술하기 매우 어렵고 비록 큰집이라도 마루 있는 집은 하나도 보지 못할너라.” 노병선, “교우 노병선씨 열람 일. 속전호,”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 (1898년 9월 28일) 2

Baird)도 1897년 서북지역을 탐사한 후 “서양인들에 대한 이들의 태도, 이들의 사회적 여건, 말씀을 들으려는 태도는 이들을 마치 다른 민족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었다”고 기록하였다.¹⁹⁾ 왜 서북인들은 이처럼 달랐을까? 무엇보다도 먼저 유교의 영향력을 그 이유로 꼽을 수 있다. 조선 정부의 통치 이데올로기였던 유교는 조선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차별을 받던 서북지방에서 동일한 영향력을 갖기는 어려웠다. 더구나 유교를 연구하고 실행하는 핵심 세력인 양반이나 재지사족이 거의 부재하였던 서북지방은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였을 것이다. 보수적이고 수구적인 유교의 영향을 적게 받은 서북인들은 그만큼 진취적이고 개혁적이며 활동적일 수 있었다.

한편, 유교에 대한 지식은 서울이나 삼남지방 보다는 적었지만 외부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지식에 대해서는 보다 개방적이었다. 외부세계와의 왕래를 금하였던 조선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조선인들이 외부세계에 관한 접촉이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서북인들은 그들의 지리적 위치상 중국과 인접하였으므로 국경을 통해 외부인과 외방세계의 소식을 계속 접할 수 있었고 이러한 기회는 부연사행이나 여러 개시나 후시와 같은 국제무역을 수행하면서 더욱 많아졌다. 보수적이고 수구적인 유교의 영향력이 약했기에 서북인들은 그러한 경로를 통해 접하게 된 새로운 세계와 지식에 대해 더욱 개방적이고 수용적일 수 있었다.

서북인들이 다른 지역의 조선인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독립적이고 활동적이고 자유로울 수 있었던 또다른 이유는 이미 언급한 재지사족의 부재 때문이었다. 재지사족은 자신들의 지역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 향청을 설립하고 향안을 유지하고 향약을 만들어 지방민들을 규율, 통제하였다. 따라서 재지사족이 많이 활동하는 서울 이하 삼남지역에서 일반 평민들은 양반계급에 의해 규제되고 종속되어 독립적이거나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차이를 서북인 김구는 삼남지방을 여행중 그곳 평민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내가 상놈으로 해주 서출에서 난 것을 늘 한탄했었는데, 이곳에 와보니 양반의 낙지(樂地)는 삼남이요 상놈의 낙지는 서북이 아닌가? 내가 해서(海西) 상놈이 된 것이 큰 행복이지 만일 삼남 상놈이 되었던들 얼마나 불행했을까?”²⁰⁾ 서북지방의 독특한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서북인들은 보다 자유롭고 진취적이며 독립적일 수 있었다는 사실이 잘 드러난다.

19) William M. Baird, “Letter from Rev. W. M. Baird, Seoul, Korea, 14 May 1897,” *Church at Home and Abroad* 22 (August 1897). 126

20) 김구, 백범일지 (서울: 서문당, 1989), 126.

Ⅲ. 김양선의 신앙과 한국교회

1. 기독교 수용

지금까지 살펴본 서북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배경은 곧 매산 김양선의 신앙의 배경이 된다. 매산이 태어난 곳은 평안북도 의주이다. 이미 앞서 보았듯이 학문적 능력에 상관없이 단지 서북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조선 오백년동안 정치적 차별을 받아온 서북인들은 지리적 위치상 경제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유교나 재지사족의 영향을 적게 받은 이들은 적극적이고 진취적이었으므로 외부세계나 문물을 접촉하고 수용하는데 있어 보다 개방적이었다. 이들이 외부인이나 외부 세상을 접하는 방법은 부연사행이나 각종 무역시장을 통해 이루어 졌는데 조선 말기에는 특히 고려문에서 개최되는 책문 후시가 큰 역할을 했다. 많은 수의 서북상인들이 이곳에 와 무역을 행하였는데 의주에서 이틀 정도면 되는 거리이므로 의주상인들도 많았다. 이들은 고려문에서 장사도 하고 외부 세상에 대한 소식도 듣고 때로는 서양인도 만나기도 하였다. 그러던중 어느 날(1874년) 이들은 고려문에서 한문성경을 들고 한국 상인들을 찾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선교사 로스(John Ross)를 만나게 된다. 로스는 한국 상인들에게 성경을 팔며 전도를 하였으나 별 반응이 없었다. 그러나 여관에 쉬고 있는 로스에게 50대의 상인 한 명이 찾아왔다. 로스는 그 상인으로부터 “대원군의 쇄국정책 등 한국 정세에 관한 정보와 한국어의 발음을 배웠으며, 그 상인에게 신약 전서(新約全書)와 훈아진언(訓兒眞言)을 건네주었다.”²¹⁾ 이 상인은 성경과 전도문서를 가지고 의주로 돌아와 자신의 아들과 친구들에게 읽어주었는데 바로 이 의주 상인의 아들이 백홍준이었다.²²⁾

로스는 2년 뒤 1876년 고려문을 다시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한국어 어학선생을 얻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의주 상인 이용찬을 만날 수 있었는데 로스는 그와 함께 지내면서 미래의 한국 선교사를 위한 한국어 교재를 발간했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을 초역하였다. 또한 그 무렵 또다른 스코틀랜드 선교사 매킨타이어(John MacInre)의 전도를 받은 의주 상인 서상류도 번역에 동참하여 누가복음도 출간하였다.²³⁾

백홍준의 부친이 준 성경과 소책자를 2-3년간 읽다가 찾아온 것이다. 시험과 3-4개월에 걸친 구도기간을 거친 후 이 두 청년은 그해 봄 한국 개신교 사상 최초로 수세를 받게 되었

21) 이만열, 한국기독교와 민족의식 (서울: 지식산업사, 1991), 41

22) Ibid

23) Ibid, 42

다.²⁴⁾ 두 수세자의 이름을 모두 알 수는 없으나 한 명의 이름은 분명 백홍준이었다.²⁵⁾ 백홍준은 그후 몇 개월간 성서 번역을 도운 후 곧 의주로 돌아와서 주위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하기 시작하였다. 백홍준, 이용찬, 서상륜 이외에도 이성하, 김진기, 최선균, 이익세, 김청송 등과 같은 “모험적인 의주인들이 만주에서, 혹은 만주와 의주를 오가며 선교사들을 도와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러한 청년 상인들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기독교 수용태도는 … 한·중 국경지역에서 이후 10여 년간 계속되었다.”²⁶⁾ 특별히 백홍준은 1880년 한해 동안 30여 명을, 그 이듬해에는 100여명의 한국인을 매킨타이어에게 보내 며칠에서 일주일간 성경공부반에 참석하고 돌아오도록 할 정도로 열심히 전도활동을 펼쳤다.²⁷⁾

매산 김양선의 가문은 개신교 첫 세례자중 한 명이자 한국 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백홍준에 의해서 신앙에 접하게 되었다. 고려문에서 돌아온 백홍준은 누구보다도 먼저 가족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는데 그 중에는 친구 김이련도 있었다. 백홍준의 전도를 받은 김이련은 결국 1889년 4월 27일 소위 “요단강 세례”가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에 의해 압록강 건너 베풀어 졌을 때 아들 김관근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²⁸⁾ 이날 세례를 받은 김이련은 후일 전도사가 되었고 백홍준과 사돈을 맺게 되었으며 같은 날 세례를 받은 백홍준의 사위 김관근은 후에 목회를 하면서 학교도 세워 교육사업에 힘썼다.²⁹⁾ 매산 김양선은 바로 이 김관근의 삼남으로 1907년에 의주에서 출생하였으며 백홍준의 외손이 되었다. 개신교 초기 시절 그는 이미 3대째 기독교 가정이라는 이름을 얻을 만큼 한국 교회의 초기 신앙 가족이었으며, 특히 내한한 선교사에 의해서 전수된 신앙이 아니라 한국인 스스로 찾고 전파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기독교 수용”에 의한 신앙이었다. 이러한 신앙의 특징은 그후 그의 신앙과 한국교회에 대한 태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24) Ibid., 한국기독교사연구회, 한국 기독교의 역사 I (서울 기독교문사 1990), 144-45

25) 이만열, 42-43, 한국기독교사연구회, 144-45

26) 이덕주,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개종이야기 (서울: 전망사, 1990), 16, 이만열, 43

27) 이만열, 43.

28)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175; 임병태, “한국기독교박물관 설립자 김양선 교수,” 인물로 본 숭실 100년 (서울: 숭실대학교출판부, 1992), 271.

29) 임병태, 273 (임병태는 김관근이 한국 최초의 목사중 1인이라고 주장하는 듯하나 1907년 9월 17일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있었던 한국 최초 목사 장립 7인 명단에는 그의 이름이 발견되지 않는다)

2. 주체적이고 능동적이어야 할 교회

오늘날 한국 개신교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교회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선교 이후 상당 기간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황해도 소래 교회처럼 한국인들이 스스로 세우고 성장시킨 교회들도 있었지만 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지고 관리되었다. 1907년에 이르러 장로교 독노회가 평양에서 최초로 결성되었을 때 치리권과 행정권이 한국 교인들에게 부여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 후에도 선교사가 차지하던 위치와 영향력은 계속 존속하였고 한국선교의 주도국, 특히 미국 교회의 입장과 태도는 한국교회의 정책과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일제 시대는 물론이고 해방 이후에도 그러한 관계는 계속되었는데 50년대 교려신학교 문제시 메첸과 선교사의 활동과 조선신학교 문제시 프린스턴 신학교의 존 마카이 박사의 방문 활동은 그 좋은 예가 된다.³⁰⁾

서북지역의 진취적이고 독립적인 사고와 기상을 이어받은 김양선은 기독교 수용과 신앙 활동에서 있어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한국교회의 모습을 강조하였고 꿈꾸어 왔다. 김양선은 그의 연구서 『한국기독교사연구』에서 “선교의 선구적 역할”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선교 초기 한국교회의 주체성과 적극성을 매우 부각시켰다. 한국이 피선교국이지만 선교사의 내한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으로 시작되어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나라 사람들이 국외로 나아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일은 세계 선교사상 유례가 없는 일로서 한국 신교의 특징이기도 하며 자랑이기도 하다³¹⁾

김양선은 또한 성서가 이미 번역되어 전파되었다는 것도 지적한다.

프로테스탄트교회는 성서를 중심한 교단이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성서를 그 나라말로 번역하여 보급시키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국외에서 성서가 역간되어 국내에 널리

30) 메첸과 선교사의 활동과 존 마카이 박사의 방한에 대해서는 김양선, 한국기독교해방십년사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956) 149-65, 200-02, 209-13을 보라.

31) 김양선, 한국기독교사연구 (서울 기독교문사, 1971), 54 김양선은 “한국 신교 80년사,”와 “한국선교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글에서도 이를 재차 언급하고 있다. 김양선, “한국 신교 80년사,” 기독교사상 9 (1965년 4월) 6-7, “한국선교의 회고와 전망,” 기독교사상 3 (1959년 7월) 13

전파되었다³²⁾

선교 이후 한국 교회의 놀라운 성장에 있어서도 한국 교인들의 역할이 지대하였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 한국 교회는 세계 선교사상 유례없는 큰 발전을 이루었다. 한국 교회 초기 전도 사업에 있어 선교사들의 활동 이외에 한국인 전도사들의 활동이 크게 주효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³³⁾

1907년 독노회 설립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는 “한국 교회의 독자적 발전이 기약되는 한국 기독교사상 가장 희망적인 해”라고 못박았고, 1939년 4월 조선신학교가 정식 개교되었을 때 “한국인의 손으로 설립된 최초의 신학교인 동시에 선교사의 주도권에서 벗어난 신학교였음은 확실하다”고 평가하였다.³⁴⁾ 주체성에 대한 강조와 기대는 출판문화 영역에도 적용되어 1920년대 기독교 출판사인 창문사가 설립되었을 때 “창문사라는 한국인만으로 조직된 다른 출판사가 생겨서 선교사만으로 조직된 예수교서회와 쌍벽을 이룬 것은 특기할만한 일”이라고 하였다.³⁵⁾

김양선의 이러한 지적을 오늘 한국교회에 비교해 볼 때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주체적이고 능동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김양선의 기준에서 볼 때 모두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찬송가에 대한 언급에서 그는 “우리 나라 찬송가에 있어서만은 그 초창기나 현재 나를 막론하고 한국 신자의 노래가 극히 적은 것은 매우 유감된 일이다”라고 하였다.³⁶⁾ 아직도 큰 변화가 없는 찬송가, 그럼에도 별 문제를 느끼지 않는 한국교인들의 의식은 김양선이 보기에 분명 주체성과 능동성의 결핍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서구식 전통예배 방식에 고착된 듯한 한국교회의 예배의식, 유희파 일색의 신학자, 외국의 신학교육 커리큘럼을 답습하는 신학교 등도 김양선의 시각에서 볼 때 “매우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다.

32) 김양선, 한국기독교사연구, 73-74.

33) *Ibid*, 70

34) *Ibid*, 103, 170

35) *Ibid*, 146

36) *Ibid*, 75

3. 교회의 질적 성장

한국 선교초기, 특히 1895년 이후부터 교회는 급속히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보다 선교를 일찍 받았던 중국과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초창기 한국교회의 성장은 실로 놀라울 정도였으며, 많은 선교사들과 교회 역사가들이 이를 경탄의 마음으로 보도하였다.³⁷⁾ 김양선도 “한국 국민들은 많은 수효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아 완전한 교인이 되는 비율도 다른 나라에 비하여 높았다”고 기록하였다.³⁸⁾ 그러나 김양선은 이러한 성장을 교회의 온전한 성장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양적인 성장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 근거를 1904년 일본이 노일전쟁에서 승리하여 조선의 운명이 일본에게 완전히 넘어가게 되었을 때 기독교인들이 보여주었던 실망과 낙담과 절망감에서 찾았다. “기울어져 가는 나라의 회복을 위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연민과 가호를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고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³⁹⁾ 이에 김양선은 묻는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⁴⁰⁾ 그는 그 이유를 한국 교회가 양적 성장에만 치우친 까닭에 개인 신앙과 생활에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신앙생활이 너무 형식적이었다 친구를 겉으로 사랑하는 척 했으나 속으로 한없이 미워하였다 거룩한 척 했으나 마음은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차 있었다.⁴¹⁾

김양선은 이러한 문제가 1907년 1월 6일 평양 장대현교회에서부터 불붙기 시작한 “회개운동”으로 인해 갱신의 기회를 맞게 되었으며 한국 교회가 질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주목하였다.

이러한 회개운동은 뒤에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교회에 퍼져 신도들과 선교사들은 평화·사랑·기쁨·능력의 사람으로 변하였다 길선주 목사의 증언과 같이 만일 이러

37) George L Paik,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 in Korea 1832-1910 (Pyongyang Union Christian College, 1929), 252, 346, Alfred W Wasson, Church Growth in Kore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Libraries, 1934) 6-7

38) 김양선, 한국기독교사연구, 85

39) Ibid

40) Ibid

41) Ibid, 86

한 부흥이 없었더라면 한국 교회는 양적 팽창은 있었어도 질적 향상은 없었을 것이다. 이때로부터 한국 교회는 신앙의 생활화에 힘쓰기 시작하였다.⁴²⁾

매산 김양선이 타계한 후(1970년)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가 다시 한번 놀랄 정도로 급성장하였다. 그러한 성장 속에 매산 김양선이 찾던 질적 향상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 교회와 교인의 수가 늘어난 만큼 교회에, 이웃에, 세상에 사랑과 평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 그만큼의 신앙의 생활화가 이루어졌는가? 전도를 받았으나 교회에 가지 않았던 대학생들의 비개종 이유가 “기독교인의 행위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33.6%)”와 “교회의 활동이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18.9%)”인 상황, 그리하여 전도와 교회성장의 주체가 되어야 할 교인과 교회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일찍부터 질적 성장에 주목하였던 김양선의 가르침이 귀중하기만 하다.⁴³⁾

4. 압박과 구속에 저항하는 교회

김양선은 교회가 “성서의 연구·기도·전도·봉사·봉헌의 생활 등”에 힘써야 한다고 믿었으며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질적으로도 향상된다고 보았다.⁴⁴⁾ 그러나 이러한 교회가 신앙의 자유와 양심에 위배되는 일을 요청 받았을 때 교회는 결연히 반대 운동을 하여야 한다고 확신하였다. 그 이유를 그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기독교의 교리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사상을 기본으로 한 것이므로 기독교신자들은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타민족의 부당한 구속과 압박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⁴⁵⁾

그리하여 한국교회는 독립운동에 앞장섰으며, 해서교육총회 사건이나 105인 사건과 같은 탄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3·1운동에 동참하였고 끝내 신사참배문제에 직면했다.

42) Ibid, 88

43) Se Ze Cho, “The Impact of Religio-Cultural Factors on Church Growth in Korea,” D. Min. Dissertation, ITC (Atlanta, 1992), 109-13, 이원규, “한국 교회의 성장과 그 둔화 요인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한국 교회 성장 둔화 분석과 그 대책 (서울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1996), 72에서 재인용.

44) 김양선, 한국기독교사연구, 88

45) Ibid, 113

김양선은 1931년 만주사변 후 기독교 학교와 교회와 교인에게 몰아닥친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를 이전의 다른 탄압이나 박해와는 성격이 다른 문제라고 보았다. 105인 사건이나 3·1운동은 모두 “민족운동 또는 독립운동과 관련된 사건이어서 순수한 종교박해로 보기 어렵다.”⁴⁶⁾ 그러나 신사참배 강요는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신앙양심을 유린당하는 본격적 종교박해”였다.⁴⁷⁾ 비록 일본은 신사참배가 국민의례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하였지만 김양선이 보기에 그것은 분명 종교의식이었기에 응해서는 안될 것이었다. 김양선은 이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신사참배의 목적이 일본 신들에 대한 봉제와 민족정신의 말살에 있음이 명백함으로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봉하는 기독교인들로서 신사에 참배할 수 없었고 민족정신을 고수하려는 애국지사들로서도 결코 거기에 허리를 굽힐 수 없었다⁴⁸⁾

이러한 견해를 갖고있었기에 김양선은 신사참배에 저항하는 학교와 교회에 대해서는 “기독교 신자로서는 죽엄으로 항거하는 이외에 댄 도리가 없”다고 잘라 말하였고, 신사참배를 종용하고 획책한 측에 대해서는 “한 가룟유다 때문에 장로회총회는 다시 신사에 허리를 굽히는 치욕을 당하였다”고 통분하였다.⁴⁹⁾

김양선은 말로만 아니라 몸으로 신사참배를 반대한 신앙인이었다. 신사참배의 비종교론, 불가피성, 대세론이 자리를 잡아가던 1938년 2월 신사참배 거부운동의 주모자로 검거되어 평양서에 1개월간 수감되었고 그 이듬해인 1939년 가을 다시 신사참배강요 항거사건으로 평양서에 8개월간 수감되었다.⁵⁰⁾ 이 때는 이미 한국 교회가 1938년 9월 장로회총회를 최후로 전 교회가 신사에 무릎을 꿇고 난 후였다.

실로 김양선은 부당한 구속과 압제에 불응하면서 신앙의 자유와 양심을 외친 살아있는 기독교인이었으며, 이러한 그의 신앙은 물신주의와 세속주의와 같은 새로운 우상이 한국 교회와 교인들의 숭배를 강요하고 있는 오늘 다시금 가슴 깊이 되새길 필요가 있다.

46) Ibid, 172-73

47) Ibid, 173

48) Ibid, 176

49) Ibid, 186, 194

50) 임병태, 277, “매산 김양선교수 약력,” 사학연구 20 (1986년 9월) 12

5. 성서에 기초한 교회

김양선은 한국 교회에서 성서가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보았다. 선교사가 들어올 수 없었던 시기에 성서가 들어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였다. 비록 선교사도 없었고 교회도 없었지만 성서는 초기 신자를 만들어 가면서 한국 교회의 터를 닦았다. 백홍준과 이성하는 “다량의 한글 복음서를 고지 속에 넣어서 국경을 넘”어와 “의주·구성·삭주·강계 지방에 다량의 복음서를 전파하여, 수백 명의 세례 지원자를 얻는데 성공하였”고 서경조는 1885년 황해도 소래로 이주해 살면서 “그 곳에서 복음서를 전파하여 같은 해에 20명의 세례지원자를 얻었다.”⁵¹⁾ 선교사 언더우드도 입국하였을 때 “의주, 소래, 서울 등지에 약 150명의 세례 지원자가 있었다.”⁵²⁾

김양선은 단지 성서가 먼저 들어와 선교를 시작했다는 점에서만 성서의 의미와 중요성을 찾지 않는다. 성서가 “세계문자 중에서 가장 우수하고도 쉬운 한글”로 번역, 사용되었다는 점도 주목한다. 김양선이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그렇게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가장 우수하고도 쉬운 한글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그리스도교가 그렇게 단시일에 그렇게 크게 발전되었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긍정하는 바 사실이다.”⁵³⁾ 이러한 관점에서 김양선은 선교초기 교회 급성장의 3대 요인중 하나로 한글 성서를 꼽았으며, 이후에도 계속된 교회성장의 원인을 “성서의 번역과 보급과 연구에 크게 힘쓴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⁵⁴⁾

이같이 의미있고 중요하기에 김양선은 성서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을 한국 교회에게 요구했다. 한편으로는 “성서에 관한 풍요한 지식과 정당한 이해를 위하여” 교인들에게 성서를 가르칠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성서의 번역상 무오를 기하기 위하여” 성서개역사업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을 요청했다.⁵⁵⁾ 오늘날 계속적인 성서개역사업 보다는 이미 나온 개역 성서에 고착된 듯한 한국 교계와 교인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김양선의 이같은 제시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51) 김양선, 한국기독교사연구, 53

52) 김양선, “한국 신교 80년사,” 7.

53) 김양선, “한국선교의 회고와 전망,” 14.

54) Ibid; 김양선, “한국 신교 80년사,” 7. 나머지 두 요인으로는 “한국인의 민족성”과 “정치적 환경”을 지목했다. 김양선, “한국선교의 회고와 전망,” 14.

55) 김양선, “한국 신교 80년사” 7.

6. 바른 역사를 기록하는 교회

역사는 후손을 위해 기록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김양선은 숭실대학 3학년 때 양주동 교수와의 만남에서 깨달았다. 그는 한국교회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으로 생각하였다. 김양선의 교회사연구는 사실 자연스럽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가계가 최초의 개신교 신자로 한국 개신교사의 주역이었다. 그의 외조부 백홍준, 그의 조부와 부친인 김이련과 김관근이 활동하던 이야기와 사용하던 책과 물건들이 모두 한국초기개신교사 자료였다. “이 사료를 물려받은 그는 한국교회사 자료의 수집과 보관이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요, 그것을 통한 교회사 연구는 자신에게 주어진 숙명이라 생각했던 것이다.”⁵⁶⁾

그는 해방 이전부터 틈틈이 교회사 자료를 수집, 정리, 연구하였고 서울에 내려와서는 수집한 자료를 보관할 기독교 박물관 설립을 추진하였다. 이 노력은 드디어 빛을 보게 되어 1948년 4월 20일 한국기독교박물관 및 매산고고관이 서울 남산에서 개관되었으며, “많은 신자들의 관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위가 공원이어서 각급 학교 학생과 일반 시민들의 관람이 끊이지 않았다.”⁵⁷⁾ 한편, 학계에서는 아직 한국교회사가 “거의 연구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었지만 김양선은 1947년에 『한국기독교전래사』, 1947과 48년에 『한국기독교문화사약고』, 1956년에 『한국기독교해방10년사』 등을 발표하였다. 또한 1966년에는 그가 중심이 되어 백낙청, 한태동, 마삼락 등과 함께 한국교회사학회를 창설하여 활동에 들어감으로써 “한국교회사가 하나의 학문분야로 성립·발전하게 되었다.”⁵⁸⁾

김양선은 이같이 한국교회사를 위한 왕성한 활동을 펼쳤는데 주목할 것은 결코 진실을 왜곡하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모함과 비판의 어려움을 겪게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뜻을 접지 않았다. 1956년 『한국기독교해방10년사』가 출간되었을 때 한국 교계에는 큰 파문이 일어났다. 1950년대 초 고려신학파와 기독교장로회파가 각각 분립되어 나가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매산 김양선은 “그 실상을 저자 나름으로 해석하여 교권을 위한 분쟁이었음을 지적한 때문이었다.”⁵⁹⁾ 이는 교단 분열이 흔히 외견상 나타나듯이 교리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기보다는 정치적, 경제적, 신분적, 지역적 차이로 인해 기인된다는 니버의 해석과 일치하는 분석이다.⁶⁰⁾ 이같이 교단 분열이 교권주의자들에 위한 분쟁의

56) 임병태, 278-79.

57) Ibid, 278

58) Ibid, 282, “매산 김양선교수 약사,” “김양선교수 저작 목록,” 사회연구 20 (1968년 9월) 13, 15, 17-18

59) 임병태, 282, 김양선, 한국기독교해방10년사, 146-49, 155, 157-59, 164, 192-93, 248-52, 255

60) 자세한 내용은 리차드 니버(노치준 옮김), 교회 분열의 사회적 배경 (서울: 종로서적)을 참조하라

결과로 발생하였다고 말함으로써 김양선은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지만 “그는 추후도 굴하지 않고 역사가로서 진실을 파헤쳤을 뿐임을 주장하였다.”⁶¹⁾

역사가 바로 기록되어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듯이 교회의 역사도 바로 기록되어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 왜곡된 역사는 후손에게 왜곡된 시각을 제공하며, 그 시각을 통해 본 교회의 현실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 그간 보수 진영에서건 진보 진영에서건 교회의 역사를 자기 중심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기록하다 보니 왜곡도 많았고 이로 인한 오해와 감정 대립도 많았다. 그리고 이 오해와 감정 대립은 교회간 평화와 통합 대신 불화와 분열만을 지속시켰다. 왜곡된 역사가 바로 세워져 오해와 대립이 종식될 때 참으로 진정한 평화와 일치가 가능할 수 있다. 바로 여기에 김양선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진실을 파헤쳐서 역사를 바르게 기록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IV. 나오는 말

이상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도 매산 김양선은 한국 교회를 위해 관심을 아끼지 않았다. 기독교대학의 발전, 교단연합사업 장려, 학생 및 청년운동 활성화, 농촌에 대한 관심 고취, 교회의 사회사업 확충, 신학의 수립 등 한국 교회에 대한 그의 관심과 분석은 계속된다.⁶²⁾ 선교 1세기를 지나 2세기의 문턱을 넘어선 이 때 한국 교회가 뜻하지 않게 양적 성장 둔화, 질적 성장 문제라는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여러 가지 원인과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럴 때 한국 교회의 신앙의 선조요 몸과 마음을 바쳐 한국 교회를 지키고 사랑한 매산 김양선의 신앙과 학문을 다시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61) 임병태, 282.

62) 김양선, “한국선교의 회고와 전망,” 16-17

참고 문헌

- 고석규, “18세기말 19세기초 평안도 지역 향권의 추이,” 한국문화 11 (1990).
- 김 구, 백범일지, 서울·서문당, 1989.
- 김양선, “한국선교의 회고와 전망,” 기독교사상 3 (1959년 7월)
- _____, “한국 신교 80년사,” 기독교사상 9 (1965년 4월).
- _____, 한국기독교해방십년사,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956.
- _____, 한국기독교사연구, 서울: 기독교문사, 1971.
- 김인걸, “조선 후기 향권의 추이와 지배층의 동향,” 한국문화 2 (1981년 12월).
- 김현승, “참된 보화. 김양선 교수에게,” 사학연구 20 (1968년 9월).
- 노병선, “교우 노병선씨 열람 일. 속전호,”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 (1898년 9월 28일).
-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 유승주, “조선후기 대청무역의 전개과정,” 백산학보 no. 8 (1970년 6월).
- 이광린, “개화기 서북지방의 개신교,” 송전대학교논문집 5 서울: 송전대학교, 1974.
- 이덕주,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개종이야기, 서울: 전망사, 1990.
- 이만열, 한국기독교와 민족의식, 서울 지식산업사, 1991.
- 이승훈, “서북인의 숙원신동,” 신민 no 14 (1926년 6월).
- 이원규, “한국 교회의 성장과 그 둔화 요인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한국 교회 성장 둔화 분석과 그 대책, 서울.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1996.
- 이원순, “부연사행의 경제적 일고,” 역사 교육 no. 7 (1965년 6월).
- 임병태, “매산 김양선교수 약력,” 사학연구 20 (1968년 9월).
- _____, “매산 김양선 교수 저작 목록,” 사학연구 20 (1968년 9월).
- _____, “한국기독교박물관 설립자 김양선 교수,” 인물로 본 송실 100년, 서울. 송실대학교 출판부, 1992.
- 정우경, “홍경래난의 성격에 대한 검토,” 역사 제문제 13 (1949년 11월).
- 정진영, “조선후기 제지사족의 촌락지배와 그 해체과정,”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한국기독교사연구회, 한국 기독교의 역사 I, 서울. 기독교문사 1990.
- 한상준, “조선조의 상피제에 대하여,” 대구사학 no. 9 (1975년 11월).
- 홍희유, 조선상업사, 평양 과학백과출판사, 1989.

- Baird, William M. "Letter form Rev. W. Baird, Seoul, Korea, 14 May 1897."
Church at Home and Abroad 22 (August 1897).
- Kawashima, Fujiya. "A Study of the Hyangan: Kin Groups and Aristocratic
Localism in the Seventeenth-and Eighteenth-Century Korean Countryside."
Journal of Korean Studies 5 (1984)
- Ledyard, Gari. "Korean Travelers in China over Four Hundred Year, 1448-1887."
Occasional Papers on Korea no. 2 (March 1974).
- Lee, Ki-baik A New History of Korea. Translated by Edward W. Wagner Seoul:
Ilchokak, 1984.
- Lee, Kwang-rin. "Western Korea and Protestantism in the Enlightenment Period."
Journal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no. 41 (June 1975).
- Paik, George L.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 in Korea 1832-1910. Pyongyang:
Union Christian College, 1929.
- Wasson, Alfred W. Church Growth in Kore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Libraries, 1934.

Abstract

The Faith of Kim, Yang-sun, a Church Historian, and Korean Church

Chull Lee

Kim, Yang-sun(1907-1970) was a distinguished church historian in Korea, making profound research on the subject. We can see his academic zeal and contribution to the progress of the subject in his scholarly works. So can we do his love and concern about Korean church in the works. As other historians did, he must have had his own points of view on which he interpreted and evaluated the church history. From the points, he would have presented the way the Korean church had to follow. This study attempts to find out what the points were, how they were formed, and what meaning and significance they have for the Korean church today. For this, we first look into the circumstances of Northwest Korea where he was born and brought up, since he was, like other people, a son of his atmosphere.

Northwest Korea had distinct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circumstances. Because of this, people in the region came to harbor a number of specific attitudes and yearnings that were uniquely their own. In the political domain, Northwesterners had long suffered from both the central government's discrimination of appoint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s' squeeze and oppression. So they came to yearn for liberty and equality. Since they were hardly able to accomplish their political ambition, many of the northwesterners pursued their careers in the economic area instead of in the political area and grew up to the independent middle class, at least in economic sense. Culturally they had greater openness to new ideas. The northwest territory was relatively more feeble influence of Confucianism than other regions. Non-existence of yangban, a ruling class, was another characteristic of the region.

Northwesterners could therefore be more independent, progressive, and autonomous in their everyday life and enjoy more freedom to make social action than people in other territories.

Kim, Yang-sun grew up in such atmosphere of Northwest Korea. He had a grandfather-in-law, Paik, Hong-jun, who had crossed the Yalu river(Korean-Chinese border line), met a Scotland missionary in China and got baptized by him long before foreign missionaries entered Korea. His grandfather, Kim, Yi-ryon, and father, Kim, Kwan-keun, also were baptized on the other side of the river in 1889, which was apparently against the law of the central government. Christianity in Korea, it can be thus said, started with the independent and progressive activity of Northwest Koreans rather than that of early missionaries. Kim, Yang-sun valued this point, and from this point he started his evaluation of the Korean church. 1)He emphasized in his study an independent and autonomous aspect of Korean church in its early stage and envisioned the church to be more independent and autonomous in church activity, theological education, publication, ritual system and so on. 2)Kim valued qualitative growth of church above quantitative growth. The Korean church falls far short of fully performing the role of the light and salt for the world, he believes, when it makes quantitative progress only. 3)According to him, the church should protest against any religious oppression. In any circumstance, the church has to remain faithful to its faith. He put his principles into practice. 4) Bible is an invaluable book to Christians, for the church should think and act only on the basis of Bible. This Bible needs to be kept being revised to avoid an error in translation. 5)History should be recorded as it happens. It should not be distorted by a political or moral cause. Nor should it be written only for contemporaries. It has to be recorded for the generations to come.

Today the Korean church faces various problems from church decline to criticism from the Korean society. It may be thus time to give ear to Kim, Yang-sun. The Korean church needs to look back upon its past and reflect its place and role in the Korean church history and in the Korean society.

여 백